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계획 세우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행을 갈 때도 꼼꼼하게 일정을 짜기보다는 일단 떠나는 것에 의미를 두는 편이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일 년을 열두 달로 나누게 되면 벌써 12분의 1이 흐른 셈이다. 작년에는 1월에 최소한의 계획 같은 걸 세웠다. 웬지 모르게 올해에는 잘 세우지 않던 계획을 그나마도 미루고 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뭘지 모를 막연함이 존재한다. 이제 한 달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조금씩 계획을 세우려 한다. 업무 차원은 일단 제외하고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 본다. 아마도 가장 앞서서 일은 책을 꾸준히 읽는 것과 건강을 위

너무 애쓰지 말자

한 운동이 될 듯하다. TV를 거의 보지 않는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책 읽기는 삶의 새로운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운동은 스트레칭, 팔굽혀펴기, 걷기, 계단 오르기, 아이들과 축구하기 등이다. 대부분 일상의 간단한 것들이지만 정작 그동안 하지 않고 있던 것들이다. 그 외에도 커피를 조금 줄이고 물 자주 마시기, 목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을 돌아보는 시간 갖기 등도 포함해야겠다. 지면을 빌려 이렇게라도 말해 놓으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믿음으로 하나씩 실천해 볼 생각이다. 이 정도만 잘 하더라도 성공적인 한 해가 될 것 같다. 평소 잘 하지 않던 일을 습관으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온몸으로 경험하지 않았던가. 조금씩 하나씩 하면서 바뀌어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최근에는 독서도 '책세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이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비전을 가져서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무언가를 '책세계' 하는 것은 그 하나의 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 전체를 '책세계' 만

다. 뻘뻘한 삶이 아니라 조금은 험련한 삶이어야 타인을 대하는 태도도 유연해지지 않을까. 흔히 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 위에서 열거한 내용들은 올해 내가 '할 일'이고, 금연이나 금주와 같은 것들은 '하지 않아야 할 일'에 해당한다. 얼핏 보면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정반대의 두 가지 특징이 동시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둘은 하나다.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은 모두 '애쓰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서로 방향은 다르지만 한쪽으로 힘껏 끌어당기는 일이다. 지금 우리 주변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서로 애쓰면서 정작 승자는 없는 구조이다.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재테크, 교육, 다이어트, 심지어 독서까지 적당히 하자는 말은 없고 백세게 하는 것들투성이다. 그렇게 힘쓰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애쓰는 형국이다. 차라리 애쓰지 않고 가만히 두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올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사소

한 것들을 '계획'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에는 계획을 조금 줄여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기 위해 애쓰지 않기, 힘쓰지 않기, 이 악물지 않기 등이 필요하다. 그 대신에 그냥 가만히 바라보기, 곁에 서서 지켜보기, 충고나 참견하지 않기, 아무 말 하지 않기, 앞서 람의 말을 충분히 듣기, 스킨은 바람결 느끼기, 풀과 꽃의 향기 맡기, 온몸으로 햇살 받기 등은 어떨까. 누구나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로하지 않아도, 참견하지 않아도, 과도하게 섭취하는 음식을 줄이고, 불필요한 물 사용을 줄이자. 습관적으로 하는 욕을 줄이고, 타인을 공격하거나 혐오하는 일을 줄이고, 다양한 이유로 차별하는 언어와 행위를 줄이자. 지금 우리는 충분히 누리고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조금씩만 줄이자.

종교칼럼

사랑의 나침반



임형준  
순천 빛보라교회 담임목사

명절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도 고향을 향하여 대이동을 한다. 올 설 명절 연휴 역시 '우한 폐렴'의 위험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모 형제를 만나러 고향을 찾는 이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고향 집에 모이면 먹고사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취업, 결혼, 육아, 건강, 정치, 영화, 문학, 인공지능, 음악 등 다양한 주제로 음식을 먹으며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운다. 자녀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세배를 하면 어른들은 덕담과 용돈을 두둑히 주신다. 그리고 명절 연휴가 끝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명절을 맞아 온 국민이 어떠한 불편함과 고통

을 감수하고도 고향과 가족의 품으로 이동하듯이 사랑을 움직이게 하는 이 에너지의 근원은 사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사랑이다'는 말에 동의한다. 인간은 사랑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사랑하는다는 뜻이며 궁극적인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우리 인간은 그 사랑을 지향하며 그 사랑 안에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사랑하면 보িয়ে 되고 사랑하면 생각하게 되고 사랑하면 움직이게 된다. 성경은 올바른 사랑을 향하도록 방향을 나침반처럼 제시하여 지향하도록 교훈한다.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감정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인간의 마음은 죄악으로 인해 사랑의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잘못된 방향을 알

려 준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인용해 보면, 1914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하원은 또 다른 선박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다. 그해 1월, 안개가 짙게 낀 버지니아 연안에서 증기선 먼로호가 상선 낸터킷호와 충돌해 침몰했던 사건을 다룬다. 선원 41명이 차가운 대서양 바닷물 속에서 목숨을 잃고 낸터킷호 선장이 소환되고, 재판 과정에서 먼로호 선장은 표준 자기 나침반과 2도나 차이가 나는 항해 나침반을 가지고 배를 조타한 사실이 드러났다. 능숙한 선장이 이런 나침반을 사용하는 것은 관행이었고, 먼로호 선장으로 있던 1년 동안 항해 나침반을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다. 결합이 있었던 나침반은 결국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나중에 만난 두 선장은 상대방의 손을 꼭 쥐고 서로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다. 이 무뚝뚝한 뱃사람들의 흐느낌은 잘못된 방향 설정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준다.

나침반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북쪽을 가리키기에 지도를 놓고 나침반의 방향을 지도의 위도와 경도에 맞추어 배를 운행하지만 하면 목적지까지 무사히 항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나침반만 의지해서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바다 속에는 해류가 있고,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어 배가 밀려가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고, 더더구나 실수하여 암초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배가 부딪혀 좌초할 수도 있고, 엉뚱한 방향으로 항해하여 먼로호와 낸터킷호처럼 충돌할 수도 있다. 그러기에 항해사는 나침반과 지도, 주변의 지형지물, 하늘에 떠 있는 별 등을 종합하여 정확히 판단하려 최선을 다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욕망은 올바른 사랑의 나침반의 작동을 마비시키고 자동 이탈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자동 이탈된 본능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마음이 바른 사랑을 가리킬 수 있도록 그것을 정기적으로 재조정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社說

경선 후보 심사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여야 정당들이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공모와 자격 심사 등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이번 주말부터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천 적합도(당선 가능성) 조사'에 착수한다. 공천 적합도 조사는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심사(컷오프)의 평가 항목 가운데 하나로 비중이 가장 높다. 나머지 컷오프 배정 비준은 정체성과 도덕성이 각각 15%다.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면접도 각각 10%씩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통한 공천 적합도 조사를 다음달 7일 실시 예정인 면접 심사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 정이다. 어제부터 총선 후보 공모를 시작한 자유한국당도 다음달 5일까지 공모를 마감하고 후보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의당 등 다른 정당도 본격적인 경선 일정을 시작한다. 경선 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각 당 예비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후보 가운데는 음주운전 전과 경력이 4·8건에 달하는 이는 물론 청소년간강·상해·폭행 등으로 실형으로 한 '공천 적합도(당선 가능성) 조사'에 착수한다. 공천 적합도 조사는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심사(컷오프)의 평가 항목 가운데 하나로 비중이 가장 높다. 나머지 컷오프 배정 비준은 정체성과 도덕성이 각각 15%다.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면접도 각각 10%씩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통한 공천 적합도 조사를 다음달 7일 실시 예정인 면접 심사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 정이다. 어제부터 총선 후보 공모를 시작한 자유한국당도 다음달 5일까지 공모를 마감하고 후보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의당 등 다른 정당도 본격적인 경선 일정을 시작한다. 경선 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각 당 예비

신종 코로나 감염증 공포 부추기는 가짜 뉴스

"광주 남구에 확진자가 나왔다. 보건소는 천막을 짓고 난리가 났다." "봉선동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조대병원에서 진단받았다. 조선대병원 간호사가 직접 말했다." 이는 모두 가짜 뉴스다. 보건국의 확인 결과 광주·전남에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없다. 그럼에도 광주·전남 지역에서 이와 관련 각종 유언비어와 가짜뉴스가 휴대전화 문자와 카톡,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은 엇그제 중국에 다녀오지도 않았으면서 "우한폐렴에 걸렸다"며 119상황실에 거짓 신고한 A(25) 씨를 공무방해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문제는 확진자가 나왔다는 가짜 뉴스의 해당 보건소와 병원이 수백 통의 확인 전화를 받느라 업무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른다는 데에 있다. 터무니없는 유언비어가 불안감과 공포를 키우고 사회적 비

용까지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가짜 뉴스에 대해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엄정한 대응을 당부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엄정 대응 천명은 경제당국의 확인 결과 광주·전남에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없다. 그럼에도 광주·전남 지역에서 이와 관련 각종 유언비어와 가짜뉴스가 휴대전화 문자와 카톡,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은 엇그제 중국에 다녀오지도 않았으면서 "우한폐렴에 걸렸다"며 119상황실에 거짓 신고한 A(25) 씨를 공무방해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문제는 확진자가 나왔다는 가짜 뉴스의 해당 보건소와 병원이 수백 통의 확인 전화를 받느라 업무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른다는 데에 있다. 터무니없는 유언비어가 불안감과 공포를 키우고 사회적 비

無等鼓

치명적인 바이러스 창궐과 전염병蔓延 혹은 좀비 확산 등 재앙을 다룬 영화나 소설에는 반드시 도시를 폐쇄하는 장면이 나온다. 어떤 경우이든 질병 발원지가 있기 마련이고, 정부는 이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도시를 폐쇄하는 것이다. 폐쇄된 도시의 사람들은 감염자이건 정상인이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다. 탈출을 시도하다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도시 밖의 사람들은 폐쇄 직전에 가족들을 구출해 내기 위해 목숨을 건다. 어찌 보면 뻔한 스토리이다. 전염병을 다룬 수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그 원형으로는 역시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1947년 발간된 '페스트'는 프랑수아 알제리의 해안도시 '오랑'을 무대로, 흑사병의 재앙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 낸 작품이다. "도시사가 내민 공문을 받아 보았다. 공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페스트 발병을 공표하고 도시를 폐쇄하시오. …… 실제 도시를 통하는 성문들이 폐쇄되자 벌어진 일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다.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당한 셈이었다." 5부로 구성된 '페스트' 중 줄거리가 급진전되는 1부의 마지막 쪽과 2부 시작 부분이다. 도시 폐쇄 이후 물가가 오르고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며, 자포자기하는 사람과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뒤엉킨 스토리가 전개된다. 지은이는 페스트 퇴치 이후에도, 페스트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며 글을 맺는다. '페스트'의 도시 폐쇄 장면과 전염병 퇴치 이후 분위기 묘사는 이후 전염병 관련 작품들에 크게 영향을 끼쳐, 어느 작품이든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을 주기까지 한다. 바이러스 창궐을 소재로 한 영화 '감기'와 좀비로 뒤덮인 도시 탈출을 그린 미국 영화 '월드워 Z'도 별만 다르지 않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지 우한(武漢)시는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다. 중국은 최근 우한시를 봉쇄했다. 한국과 미국 등 각국은 전세계를 뒤흔들자 국 국민을 귀국시키고 있다. 소설과 현실이 다르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느낀다. /채희중 사회부장 chae@

기 고

청소년 폭력 예방책은 없는가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론을 통해 자주 접하는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이 사회 문제화된 지 오래되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도를 넘어 학교 밖에서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주요 청소년 범죄의 원인들을 다양하지만 학력 중심 사회인 교육 현장의 미흡한 인성 교육과 우리 사회의 불건전한 문화와의 여과 없는 접촉이 우선 꼽힌다. 좋은 대학을 선호하는 기성세대들의 인식, 학벌주의가 판치는 사회 분위기에 더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퇴폐적·향락적인 유희 환경이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비행의 주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 등 미성년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5일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2020-2024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의하면 가해 학생의 교육과 선도를 강화하기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재의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내린다고 했다. 현행 소년법에서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무거운 죄를 저질러놓고도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들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형법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만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주요 배경은 시대적 환경이 변한 만큼 과거에 비해 범죄의 정도가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흉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성년자들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소년 범죄율을 감소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와 더불어 사회 문제로 부각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발달하는 과도기적 발달 시기로 몸과 마음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는 성장하면서 어른에 대한 반항심, 사회에 대한

반항심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사소한 장난에도 크게 감정적으로 휩쓸리면서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주위의 또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다양한 집단행동을 경험하고 반복하면서 아무런 뉘우침이나 반성 없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지난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청소년 범죄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분과 여론이 높아졌다.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과 제안'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며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인이 20만 명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교육 중심의 처분을 집행해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날 청소년 범죄는 폭행, 절도, 살인까지로 확대돼 심각한 사회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범죄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이 나 뉘우침 없는 도덕적 불감증이 더욱 굳게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으나, 청소년 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 폭력 예방과 사후 대응 방안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간의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살펴보면 학교전담경찰관(SPO) 청소년 전문가 선발 확대 배치,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신설, 아웃리치(Outreach) 전문 요원 확충, 고위험군 소년 등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감독을 통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비행 청소년들이 보호 시설 퇴소 후 사회로 복귀할 때 추후 지원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교육적 역할이 요구되며, 학생들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대응과 가정의 관심이 필요하다. 일선 학교에서 교과 수업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연계하는 '교과 연계 어울림 프로그램'도 강화해야 하지만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욕구나 복잡한 고충 등에 대해 전문적 상담을 해 주는 '학교 사회 복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에 관한 외부 전문가의 예방 교육을 늘리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며 치료하는 지원 기관들의 협력과 연계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자곡)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